

【논 문】

스페인어 ‘haber’와 ‘estar’ 동사구문에 관한 교육 방법론적 접근

이 만 기
(서울대 교수)

I. 들어가기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의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haber’와 ‘estar’ 동사구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¹⁾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주로 ‘haber’ 동사구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문제를 제기한 후 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첫째, 스페인어에 있어서 ‘존재’(existencia)를 의미하는 두 가지 문장 형태(‘haber’와 ‘estar’ 동사구문)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둘째, ‘haber’와 ‘estar’ 동사구문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1) 본 논문에서는 *estar* 동사(*estar* predicativo: Pedro está en Londres)의 장소술어구문을 *haber* 존재동사구문과 비교·분석하는 것을 논문의 주된 주제로 삼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사(*copulativo*)처럼 사용되는 *estar* 동사(*estar* atributivo: Pepe está triste)는 다루지 않는다. 술어 *estar* 동사의 여러 통사적·의미적 특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Fernández Leboranz (1999)을 참고바람.

셋째, ‘haber’ 존재구문의 현재시제 형태가 왜 ‘hay’란 형태로 나타나는가?

넷째, ‘haber’ 존재구문에서 후치 명사구가 진정한 주어인가?

다섯째, ‘haber’ 존재구문의 후치 명사구가 직접목적어라면, 왜 전치사 ‘a’가 나타나지 않는가?

마지막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제 3장에서는 스페인어의 전치사 ‘a’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은 특정 문법이론을 중심으로 한 이론 내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haber’와 ‘estar’ 동사구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된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한 글임을 미리 밝혀둔다.

II. 존재구문(Oraciones existenciales)

1. ‘haber’ 동사구문과 ‘estar’ 동사구문

스페인어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장형태로 ‘존재’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 (1) a. Hay un perro en esta calle. (스페인어)
b. Un perro está en esta calle.

스페인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는 한국학생들에게는 위의 두 문장의 구분이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존재’를 의미하는 동사가 ‘있다’란 하나의 형태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위의 두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 (2) 개 한 마리가 이 거리에 있다. (한국어)

그러나 영어의 경우, 스페인어 (1)의 문장들에 해당하는 구문이 존재한다.

- (3) a. There is a man in the garden. (영어)
 → ok Hay un hombre en el jardín. (스페인어)
 * Está un hombre en el jardín.
 b. A man is in the garden. (영어)
 → ok Un hombre está en el jardín. (스페인어)
 * Un hombre hay en el jardín.

위의 사실로 미루어보아, 스페인어에 있어서 '존재'를 나타내는 두 형태의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의 예문을 통하여 두 문장을 구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영어의 'there' 구문은 스페인어의 'haber' 구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와 스페인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두 가지 형태의 구문이 존재한다.

영어		스페인어
(a) there be NP PP	↔	Haber NP PP
(b) NP be PP	↔	NP estar PP

(4) 그렇다면, 위의 두 문장 형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우선, 위 두 문장 형태는 담화의 정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스페인어의 경우, 정상어순은 구정보(Tema) + 신정보(Rema)의 순서로 나타난다(cf. Contreras, 1983).

- (5) a. ¿Qué pasó con la resistencia?

 b. La resistencia empezó.

 Tema Rema

- (6) a. ¿Qué empezó?

 b. Empezó la resistencia.

 Tema Rema

2) 담화정보에 근거한 두 문장의 차이점을 지적해 주신 김 은경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

보도록 하자.

2.1. 'haber' 존재구문의 의미적 제약

먼저, 다음의 영어와 스페인어의 존재구문에 대해 살펴보자.

- (10) a. There is a dog in the garden. (영어)
 b. *There is the dog in the garden.
 (11) a. Hay un perro en el jardín. (스페인어)
 b. *Hay el perro en el jardín.

두 언어의 존재구문에서 후치 명사구가 정관사 명사구가 나타나면 모두 비문이 된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존재구문의 의미적·화용적 특성에 달려있다. 즉, 존재구문은 담화 정보에서 새로운 대상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므로, 청자의 의식에 없는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후치 명사구는 불특정적 해석(interpretación inespecífica)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관사 명사구는 전형적인 '전제적'(presuposicional) 성격을 띠어 특정성 해석을 가지므로 위의 존재구문에는 올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존재구문의 의미적 제약을 학자들은 '한정성 효과'(efecto de definitud)라고 부른다.

- (12) 한정성 효과: 존재구문의 후치 명사구는 불특정 해석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의미적 제약에 따라서 다음의 존재구문은 모두 비문 처리되는 것이다.

- (13) a. *Hay el error en esta página. (cf. Hay un error en esta página.)
 b. *Hay tu familia. (cf. Hay una familia.)
 c. *Hay esos libros sobre la mesa. (cf. Hay unos libros sobre la mesa.)

위의 존재구문들에서는 후치 명사구가 정관사, 소유사 또는 지시사와 함께 와서 특정적 해석을 가지게 되므로 위에서 언급한 존재구문의 의미적 제약에 위배되어 비문이 되는 것이다. 이 예문들이 정문이 되려면 오른쪽 예문들에서처럼 후치 명사구가 부정관사 명사구와 함께 나타나야 할 것이다.

2.2. 'estar' 장소술어구문의 의미적 제약

다음으로, 'estar' 장소술어구문의 의미적인 제약에 대해 살펴보자. 이 장소술어구문에서는 존재구문과는 정반대의 의미제약을 보인다. 즉 장소술어구문의 명사구 주어는 특정적 해석(interpretación específica)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장소술어구문이 담화정보상 제시된 대상, 즉 청자의 의식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estar' 동사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구 주어는 특정적 해석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

- (14) a. Aquí está el regalo de Juan. (cf. *Aquí hay el regalo de Juan.)
 b. Unos niños están allí. (cf. *Unos niños hay allí.)
 c. En el parque hay niños. (cf. *En el parque están niños.)

(14a)에서는 후치 명사구 주어가 정관사와 함께 나타나므로 특정적 해석을 띠어 'estar' 동사구문과는 가능하지만 'haber' 존재구문과는 불가능하다. (14b)에서는 전치명사구 주어가 부정관사와 함께 나타나지만, 스페인어 전치주어의 통사적 특성상 부정관사 명사구 주어는 특정적 해석을 지니게 되므로 'estar' 장소술어구문에는 가능하나, 'haber' 존재구문에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4c) 문장에는 한정사(determinante)가 없이 복수명사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정사 없는 복수명사구(FN sin determinante)는 항상 불특정 해석만을 지니게 되므로 'haber' 존재구문에만 가능하며, 'estar' 동사구문에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존재구문과 장소술어구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각 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구의 의미적 제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haber' 존재구문에는 불특정 해석을 가지는 명사구가 나타나야 하는 반면에, 'estar' 장소술어구문에는 특정 해석을 지니는 명사구의 출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적 제약은 다음의 예문에서 잘 드러난다.

- (15) a. Hay un perro en esta calle. [inespecífico]
 b. *Hay el perro en esta calle. [específico]
 (16) a. Un perro está en esta calle. [específico]
 b. *Un perro hay en esta calle. [específico]

존재구문 (15)에서는 특정해석을 지닌 정관사 후치 명사구가 나타날 수 없으며, (16)처럼 부정관사 명사구가 전치주어로 나타나면 특정성 해석을 지녀 'estar' 장소술어구문에만 가능한 것이다.³⁾

3. Formas del verbo 'haber' en las oraciones existenciales

앞서 제기했던 세 번째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haber 존재구문의 현재시제가 왜 'hay'란 형태로 나타나는가?" 다음의 예문을 보자.

- 3)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반드시 각각 특정성, 불특정성 해석을 지니진 않는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부정관사 명사구의 경우 전치주어(특정성)나 후치주어(불특정성)처럼 어순에 따라 특정성 해석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정관사 명사구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최상급 표현에서는 불특정 해석을 지니게 되어 'haber' 존재구문에 후치명사구로 나타날 수 있다.

- (i) Allí había la gente más rara que puedes imaginar. (inespecífico)

한정사 없는 복수명사구의 경우는 항상 불특정 해석을 지니므로 반드시 'haber' 존재구문의 후치명사구로만 나타나야 한다.

- (ii) Hay niños en la sala. (inespecífico)

- (17) a. **Hay** perros en esta calle.
 b. **Había** perros en esta calle.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haber’ 존재구문에는 현재시제에만 ‘y’란 접어가 나타난다. 과거시제에는 ‘haber’ 동사의 과거형만 나타나므로, 우리는 왜 현재시제에 ‘y’란 접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풀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다른 언어들의 존재구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18) a. **There** is a man in the room. (영어)
 b. **C’e** un uomo nella stanza. (이태리어)
 c. Il **y** a un homme dans la chambre. (불어)
 d. **Hay** un hombre en la habitación. (스페인어)

위에서 보듯이, 다른 언어들의 존재구문에도 모두 장소형태(elemento locativo)의 요소가 나타난다. 즉, 여러 언어의 존재구문에는 공간과 시간(espacio-temporal)의 의미를 표현하는 장소 요소가 체계적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영어의 경우 주어 위치에 ‘there’ 장소부사가 나타나며, 이태리어와 불어의 경우 장소 접어(clítico locativo) 형태로 동사에 붙어 나온다. 이와 유사하게 스페인어의 경우, 현재시제에서 시제 형태소(morfema de tiempo)로 동사에 나타난다. 이 모든 경우 공통점은, 최소한 이들 언어의 존재구문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형태요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스페인어의 존재구문에서 ‘haber’ 동사의 현재시제 형태가 ‘hay’란 동사 형태는 ‘ha’ + ‘y’의 복합 동사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hay’에서 ‘y’는 장소 요소로서 스페인어에서만 나타나는 개별적 특징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던질 수 있겠다: “스페인어 존재구문의 과거시제에는 왜 ‘habíay’나 ‘huboy’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답은 고대 스페인어에서 찾을 수 있겠다. 즉, 고대·중세의 스페인어에는 존재구문의 모든 시제에 ‘y’ 장소형태가 나타났다는 사

실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9) Algunos d'ellos fizieron lo que plogo a Dios, mas otros **y ovo** que fizieron yerros. (고대·중세 스페인어; Fernández Soriano y Susana Táboas (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고대 스페인어의 예문을 통하여 우리는 'y'란 장소형태가 언어의 변천과 함께 존재구문의 과거시제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존재구문의 현재시제 'hay'란 형태에서 'y'는 단순한 장소 요소에 불과하다란 사실이다. 존재구문에서 장소 요소가 여러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존재구문의 의미적 특성상 새로운 대상의 제시에서 장소적 표현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4. 'haber' 존재구문에서의 '주어'의 문제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를 제기해 보자: "haber 존재구문에서 후치 명사구가 주어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존재구문 (20)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 (20) Hay un perro en esta calle.

"개 한 마리가 이 거리에 있다"로 번역되므로 한국학생들은 존재구문의 후치 명사구가 주어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스페인어 존재구문의 후치 명사구는 주어가 아니다. 먼저, 후치 명사구는 반복할 경우 직접목적대명사 형태를 취한다.

- (21) a. ¿Hay [pan/ helados/ tarta/ frutas]?
 b. Sí, [**lo/ los/ la/ las**] hay. / *Sí, [él/ ellos/ ella/ ellas] hay.
 (22) (Las) manzanas, **las** hay de muchas variedades.

이에 비해서, ‘estar’ 동사구문의 경우에는 주격 대명사 형태를 취한다.

(23) a. ¿Está María?

b. Sí, (ella) está. / *Sí, la está.

이러한 자료는 ‘haber’ 존재구문의 후치 명사구가 주어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에 비해 ‘estar’ 동사구문의 명사구는 주어이다.).

둘째, ‘haber’ 존재구문에서의 동사는 후치 명사구와 일치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⁴⁾

(24) a. Había muchas chicas en esta sala. / *Habían muchas chicas en esta sala.

b. Parece haber fantasmas en esta casa. / *Parecen haber fantasmas en esta casa.

이에 비해서, ‘estar’ 동사구문의 경우 동사는 명사구 주어와 일치관계를 나타낸다.

(25) a. Las chicas estaban en esa discoteca. / *Las chicas estaba en esa discoteca.

4) 중남미 스페인어에서는 존재구문의 후치명사구와 동사가 일치현상을 나타낸다.

(i) Habían muchas chicas en esta sala.

그러나 중남미 스페인어에서도 후치명사구를 반복할 경우 직접목적대명사 형태를 취한다.

(ii) Muchas chicas, **las** habían en esta sala.

중남미 스페인어의 존재구문에서, 후치명사구와 동사 사이에 일치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목적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중남미 스페인어에도 존재구문의 후치명사구는 주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cf. Suñer (1982), Groat (1999)).

- b. Las chicas parecen estar cansadas. / *Las chicas parece estar cansadas.

주어는 동사와 일치관계를 나타낸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haber’ 존재구문의 후치 명사구는 ‘estar’ 동사구문과는 달리 주어가 아닌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스페인어 ‘haber’ 존재구문에서의 후치 명사구는 주어가 아니라 직접목적어라는 사실이다.

5. 스페인어 직접목적어와 전치사 ‘a’의 관계

마지막 문제를 제기해 보자. “haber 존재구문의 후치 명사구가 주어가 아닌 직접목적어라면 왜 전치사 ‘a’가 출현하지 않는가?”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에는 직접목적어가 사람이 나타나면 목적어 앞에 ‘a’가 요구된다.

- (26) a. He visto a una niña en esta clase.
b. *He comprado a unos libros en esta librería.

그러나 존재구문에는 다음에서와 같이 전치사 ‘a’가 나타나면 비문 처리된다.

- (27) *Hay a una niña en esta clase.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타동사의 직접목적어가 사람을 나타내더라도 항상 ‘a’를 도입하진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28) a. Besó un niño. [inespecífico]
b. Besó a un niño. [específico]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직접목적어가 사람인 경우 전치사 'a'의 도입은 명사구의 특정적 해석 여부에 따라 수의적(opcional)이다. 즉, 직접목적어 명사구가 특정적 해석을 가질 때만 전치사 'a'가 나타나는 것이다. 직접목적어 명사구 앞에 사용되는 전치사 'a'와 명사구의 의미적 해석간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관계절 구문에서 더 잘 파악된다.

- (29) a. Busco (*a) una secretaria que **hable** español. [inespecífico]
 b. Busco **a** una secretaria que **habla** español. [específico]

스페인어의 경우, 관계절 안에 접속법이 사용되면 그 선행사는 불특정 해석을 지닌다. 위에서 접속법이 사용되는 (29a)의 예문은 직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a'가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그러나 (29b) 예문처럼, 관계절에 직설법이 사용되는 직접목적어 선행사 앞에는 전치사 'a'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직접목적어가 사람인 경우 그 명사구가 특정적 해석을 가지는 경우에만 전치사 'a'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8)의 예문들에서도 직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a'가 나타나는 (28b) 문장만이 목적 명사구 'un niño'가 특정적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haber' 존재구문에서 후치 명사구가 사람을 가리키는 직접목적어인데도 전치사 'a'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존재구문의 후치 명사구가 불특정 해석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존재구문의 의미적 특성상 후치 명사구는 반드시 불특정 해석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이 명사구 앞에는 전치사 'a'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⁵⁾

5) 존재구문의 후치명사구 앞에 전치사 'a'가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Belletti (1988)의 부분격(Caso partitivo)의 관점에서 논한 논문으로는 Bruge & D'Angelo (1996)과 Shim (1999)를 참고 바람. 부분격이란 어떤 집합의 일부를 의미하는 불특정 명사구에 할당되는 격이므로, 본 논문의 논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0) Hay (*a) una nina en la clase. [inespecífico]

6. 결론

우리는 이상에서 스페인어 ‘haber’ 존재구문의 여러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존재구문인 영어의 ‘there’ 구문과 스페인어의 ‘haber’ 구문이 별개의 것이 아닌 동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1) a. There is a dog in the garden. (영어)
b. Hay un perro en el jardín. (스페인어)

위의 두 문장 모두 한정성 효과라는 존재구문의 의미적 제약을 보이며, 또한 두 언어 모두 존재구문에 장소형태의 요소(영어: 'there', 스페인어: 'y')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스페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haber' 존재구문을 영어의 존재구문과 비교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 (32) there be NP(a dog) PP(in the garden)
 ↙ ↘
 ha + y NP(un perro) PP(en el jardín)

스페인어 존재구문을 가르친다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III. 스페인어 전치사 'a'에 관하여

앞장에서 살펴본 스페인어 전치사 'a'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1. 두 종류의 전치사 ‘a’

우리는 앞서 스페인어의 전치사 ‘a’는 아래 예문에서처럼 직접목적어가 사람[+animado]이며 특정적[+específico] 해석을 지니는 의미적 자질(rasgo semántico)을 가지는 경우에만 그 명사구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러나 직접목적어 앞에 나타나는 인칭전치사 ‘a’ 자신은 아무런 의미적 자질을 가지지 않는다.

(33) He visto a María.

이와는 달리, 다음의 예문에 나타나는 전치사 ‘a’는 실제로 ‘방향’이나 ‘수혜자’와 같은 자신의 고유한 의미적 자질을 지니고 있다.

- (34) a. Voy a Madrid esta tarde. [dirección]
 b. He regalado a María un ramo de flores. [beneficiario]

여기에서는 진정한 전치사로 사용되는 ‘a’의 구체적인 용법은 다루지 않겠다. 다만 이 전치사 ‘a’와 비교되는 직접목적어 앞에 나타나는 인칭전치사 ‘a’의 여러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허사 전치사: ‘a + 직접목적어’

전치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의미적 자질을 가진 전치사 ‘a’를 진 전치사(preposición verdadera)로 부르며, 반면에 직접목적어 앞에 나타나는 아무런 의미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칭 전치사 ‘a’를 허사 전치사(preposición expletiva o falsa)라고 칭하기로 하자. 본 논문에서는 허사 전치사가 왜 진 전치사와 구분되어야 하는지를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허사 전치사 ‘a’는 진정한 의미의 전치사와는 달리, 단순히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해 주는 기능만을 가진다. 즉,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주

어와 목적어 모두가 사람([animados])인 경우 둘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즉 중의적인 해석(interpretación ambigua)을 가진다.

(35) Juan quiere María. (중의적)

알다시피, 스페인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이며 따라서 동사 앞 구성성분이 반드시 주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의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해 내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아래 문장에서처럼,

(36) a. Juan quiere a María. (비중의적)
b. A Juan quiere María.

직접목적어 명사구 앞에 인칭 전치사 'a'를 놓게되면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은 아주 쉽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직접목적어 앞에 놓이는 인칭 전치사 'a'는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단순한 격 표지자(marca de Caso) 이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 에도 이러한 격 표지자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7) 철수 영화 좋아해. (중의적)

한국어도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위의 문장에서 우리는 주어와 목적어를 쉽게 구분해 낼 수 없다. 그러나, 아래 문장에서와 같이 '이/가'나 '을/를'과 같은 격 표지자를 놓게 되면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은 전혀 어렵지 않게 된다.

(38) a. 철수가 영화를 좋아해. (비중의적)
b. 철수를 영화가 좋아해.

그러나, 한국어에서 격 표지자 없이 주어나 목적어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의 격 표지자를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9) 철수 책 샀니? (비중의적)

위의 문장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사의 의미구조상 분명히 드러나므로 굳이 주격과 목적격 표지자를 해당 명사구 뒤에 위치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스페인어에서도 나타난다.

(40) Juan compró las revistas deportivas. (비중의적)

즉, 스페인어에도 위에서와 같이 직접목적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인칭 전치사 'a'의 사용 없이도 목적어를 분명히 구분해 낼 수 있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의미구조상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인칭 전치사 'a'를 직접목적 명사구 앞에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허사 전치사 'a'는 목적어를 주어와 구분시켜주기 위해 사용되는 단순한 격 표지자이다. 한국어의 격 표지자 '이/가'나 '을/를'이 전치사가 아니라 격 표지자(marca de Caso)이듯이, 스페인어의 직접목적어 앞에 사용되는 인칭 전치사 'a'도 진정한 전치사가 아니라 허사 전치사로서 단순한 격 표지자에 불과한 것이다.

3. 전치사와 관계절

한편, 관계절을 살펴보면 허사 전치사 'a'는 진 전치사와는 달리 관계사 'que' 앞에 나타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

- (41) a. Este cuadro es muy caro. Estoy hablando **de este cuadro**.
 → Este cuadro ***(de) que** estoy hablando es muy caro.
 b. Esta casa tiene mucha luz. Vivo **en esta casa**.
 → Esta casa ***(en) que** vivo tiene mucha luz.
 c. Esta pluma es de Mont Blanc. Escribo **con esta pluma**.
 → Esta pluma ***(con) que** escribo es de Mont Blanc.
 d. Esta clase es muy interesante. Asisto **a esta clase**.

→ Esta clase ***(a) que** asisto es muy interesante.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의미적 기능을 가진 **진 전치사**는 관계사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직접 목적어 앞에 나타나는 **허사 전치사 'a'**는 관계사 앞에 나타나면 그 문장은 비문이 된다.⁶⁾

(42) La señorita es mi novia. Conociste ayer **a la señorita**.

→ La señorita ***(a) que** conociste ayer es mi novia.

이는 직접목적어 앞에 인칭 전치사 'a'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관계절로 만들 때와 같은 양상이다.

(43) Este libro es muy aburrido. Compré **este libro** ayer.

→ Este libro **que** compré ayer es muy aburrido.

6)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목적격 관계사 'que' 앞에 관사가 나타나면 인칭 전치사 'a'가 나타난다. 그러나 (ib)에서 보듯이 관계사 'que'만 나타나도 아주 자연스런 문장이 된다.

(i) a. La señorita **a la que** conocí ayer es tu profesor de español.

b. La señorita **que** conocí ayer es tu profesor de español.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전치사가 나타나야 하는 관계절에서는 반드시 관사가 요구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ii) a. Los chicos **con los que** cené ayer sopn mis alumnos.

b. *Los chicos **que** cené ayer sopn mis alumnos.

(i)의 예문들과는 달리, **진 전치사**가 나타나야 하는 (ii)의 관계절에서는 전치사가 생략되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록 (ia)처럼 인칭 전치사 'a'가 나타나는 관계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인칭 전치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관사의 존재로 인해 나타나는 요소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인칭 전치사가 생략되어 관계사 'que'만 나타나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미적 자질을 지닌 진 전치사만이 관계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사람의 직접목적어 명사구 앞에 나타나는 인칭 전치사 'a'는 진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절에서 출현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⁷⁾

본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스페인어에는 두 종류의 전치사 'a'가 있다. 하나는 의미적 자질을 지닌 진 전치사이며, 다른 하나는 문장 속의 직접 목적어를 주어와 구분하여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순한 격 표지자이며 따라서 이 인칭 전치사는 허사 전치사이다. 이 허사 전치사는, 진 전치사가 관계절 구문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과는 달리, 관계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허사 전치사는 형태만 전치사의 모습을 갖춘 것이며, 전치사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허사(expletivo)인 것이다. 허사 전치사의 유일한 기능은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 관계 (relación gramatical)를 표시해(marcar) 주는 것이다.

7) 허사 인칭 전치사 'a'와 진 전치사 'a'의 또 다른 통사적 차이점에 관한 논의는 Demonte (1989: 78-79)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문헌

- Belletti, A.(1988), "The Case of unaccusatives", *Linguistic Inquiry*, 19. 1, 1-34.
- Bruge, L. & G. D'Angelo(1996), "On the accusative *a* in Spanish", *Probus*, 8, 1-51.
- Contreras, H.(1983),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Cátedra, Madrid.
- Demonte, V.(1989), *Teoría sintáctica: de las estructuras a la rección*, Síntesis, Madrid
- Fenández Leboranz, M.(1999), "La predicación: las oraciones copulativa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en I. Bosque y V. Demonte (eds), Espasa, Madrid.
- Fernández Soriano O. y Susana Táboas B.(1999), "Construcciones impersonales no refleja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en I. Bosque y V. Demonte (eds), Espasa, Madrid.
- Freeze, R.(1992), "Existentials and other locatives", *Language*, 68. 3, 553-593.
- Groat, E. M.(1999), "Raising the Case of Expletives", *Working Minimalism*, en S. Epstein and N. Hornstein (eds), 27-44.
- Leonetti, M.(1999), "El artículo",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en I. Bosque y V. Demonte (eds), Espasa, Madrid.
- Shim, S-W(1999), "Sobre el verbo existencial 'Haber' del español", *Estudios Hispánicos*, 15, 89-119.
- Suñer, M.(1982), *Syntax and Semantics of Spanish Presentational Sentence-Type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Torrego, E.(1982), "Algunas observaciones sobre las oraciones existenciales con 'haber' en español".
- Torrego E.(1999), "El complemento directo preposicional",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en I. Bosque y V. Demonte (eds), Espasa, Madrid.

【Resumen】

Una aproximación a las oraciones con ‘haber’ y ‘estar’
del español con metodología didáctica

Lee, Man-Ki

En este trabajo hemos intentado indicar la naturaleza de las oraciones existenciales con el verbo ‘haber’ del español. Para ello, hemos adoptado la metodología comunicativa, que se caracteriza en llevar a cabo el trabajo mediante preguntas y respuestas. En concreto, procuramos dar cuenta de algunas características sintácticas y semánticas de las oraciones con ‘haber’ y ‘estar’ del español, con el objeto de destacar las peculiaridades de las oraciones existenciales con ‘haber’.

Resumiendo lo que hemos tratado en el trabajo, podemos indicar las siguientes características en cuanto a las construcciones existenciales:

① las oraciones existenciales entre las lenguas naturales tienen una restricción semántica, el ‘efecto de definitud’: la FN postverbal debe ser inespecífica. (En camibo, en las oraciones

con el verbo ‘estar’, el sujeto debe ser una FN específica.)

② las oraciones existenciales entre las lenguas llevan un elemento locativo como ‘there’ del

inglés o ‘y’ del español. O esa, el verbo existencial ‘hay’ del español no es sino una

forma compuesta de 'ha'+ 'y' (el verbo 'haber' del tiempo presente+el elemento clítico 'y').

③ las FFNN postverbales en las oraciones existenciales del español, en realidad, no son

sujetos sino objetos directos.

④ la presencia de la preposición 'a' del español sólo es posible cuando el objeto directo tiene un rasgo animado y específico.

En resumen, podemos indicar simplemente que las oraciones con 'there' del inglés equivalen a las oraciones existenciales con el verbo 'haber' del español: **'there'+be = hay**.

Por otra parte, hemos indicado que hay dos tipos de preposición 'a' en español. Una es la preposición verdadera con carga semántica, pero la otra es una falsa o expletiva como una mera marca de Caso para identificar el objeto directo en la oración.